



2022년 3월 3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3.(목) 오전 6시부터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3. 2.(수)	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5740) 고 현 과장(044-203-5750)	담당자	원미경 사무관(044-203-5742) 모덕춘 사무관(044-203-5753)

## 중남미 최대교역국,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(FTA) 추진

- 세계적 공급망 위기 속, 14년만에 멕시코와 FTA 협상 재개 -
- 자원부국 에콰도르와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(SECA) 협상 재개 -
- 중남미 신흥국과 공급망 연대강화 및 수출·투자 여건 개선 기대 -
- 멕시코·에콰도르와 CPTPP, PA 가입 과정에서 상호 협력키로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 3.1.(화) 멕시코시티에서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(Tatiana Clouthier) 경제부 장관과 한-멕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-멕 수교 60주년을 맞아 '08년 이후 중단된 한-멕 FTA 협상을 14년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함
- 한-멕 양국은 코로나 상황,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같이하면서 한-멕 FTA가 공급망 강화, 디지털 전환,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통상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함
- 또한 우리가 제안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(MoU)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적 실무 협의를 거쳐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

- 3.2.(수)에는 훌리오 호세 프라도(Julio Jose Prado) 에콰도르 생산통상 투자수산부 장관과 화상회담을 개최하여 한-에콰도르 전략적경제 협력협정\*(SECA) 협상 재개를 선언하고, 중남미 자원부국(석유매장량 중남미 3위)인 에콰도르와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
  - \* 한-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(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)은 15년 개시후 5차례 협상후 16년 중단
- 또한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및 에콰도르 통상장관과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CPTPP) 및 태평양동맹(PA) 가입에 대해 논의 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함
  - \* 멕시코는 CPTPP 회원국이자 올해 PA 의장국이며 에콰도르는 CPTPP, PA 가입신청국
-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방문 계기 멕시코 상원·하원 의원 면담, 주요 산업계, 현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아웃리치도 적극적으로 전개함
  - 한편 멕시코 일정을 마친 여 본부장은 3.2일 오후(현지시간) 우크라이나 수출통제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고, 3.3일 및 4일 양일에 걸쳐 상무부, USTR 등 고위관계자들과 연쇄 면담할 계획임

## [한-멕시코 통상장관회담]

### ① 한-멕 FTA 협상 재개

- 한국과 멕시코의 FTA 협상은 '08년 중단 이후 두 차례 정상회담('12년, '16년) 등 여러차례 재개 시도가 있었으나 **멕시코는 자국 산업계의 우려를 이유로 협상 재개에 소극적이었음**
- 그러나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아시아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이자 공급망 다변화의 거점으로서 **전략적인 통상협력이 필요하다는 양국 통상장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4년만 FTA 재개 선언을 이룰 수 있었음**
  - \*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1위 교역국, 한국은 멕시코의 아시아 2위 교역국(21년 기준)

□ 멕시코는 우리나라 10대 수출국\* 中 유일한 FTA 미체결국(홍콩, 대만 제외)으로 지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 지역을 잇는 위치에 있고, 북미·남미·아태 지역을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\*\*를 가지고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임

\* 우리나라 10대 수출국('21년) : 중, 미, 베, 일, 홍콩, 대만, 인도, 싱, 멕, 호주 順

\*\* US-CAM(미·캐·멕), CPTPP, PA, 콜롬비아, 칠레, 우루과이, 일본, 중미 5개국 등

○ 멕시코의 높은 관세율\*과 양국 간 상호보완적 무역구조\*\*를 감안할 때 FTA 체결시 자동차, 철강 등 우리 업계의 수출 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일본('05년 멕시코와 무역협정 발효)과의 상대적 경쟁 열위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\* 주요품목 멕시코 관세율 : 자동차(15-20%), 철강(15%), 냉장고(10-15%), TV(10-15%) 등

\*\* 우리는 자동차·철강·평판디스플레이·반도체 및 합성수지 등 수출 ↔

멕시코는 원유·광물 및 농축산물, 자동차부품 등을 주로 수출

○ 한-멕 FTA는 전통적인 상품·서비스 교역확대 및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과제인 공급망 복원력, 기후변화 및 디지털 통상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

○ 양국은 상반기 중에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3월 중 예비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

□ 여 본부장 오늘 회담에서 “한-멕 FTA는 양국 통상당국의 오랜 숙제였으며, 공급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양국간 FTA 추진은 양국 경제 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게임 체인저(Game Changer)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평가

## ② 한-멕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(MoU)

□ 또한 여 본부장은 양국 간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 확보를 위해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(MoU) 체결을 제안하였으며, 우크라이나 사태

악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, 유사 시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해 사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

- 한-멕시코 양측은 반도체, 배터리, 전기차 등 주요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, 이차전지,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자원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자원 부국인 멕시코\* 간의 공급망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,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전해 나가기로 함

\* 멕시코는 세계 아연 생산량 6위, 구리 생산량 10위, 납 생산량 5위, 형석 2위의 자원 부국  
- 구리·아연은 철강 등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이차전지, 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며, 형석은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불화수소 원천 자원

- 지난해 11월 촉발된 요소수 품귀사태에서 한국과 멕시코 기업은 긴급 네트워크를 가동해 한국에 차량용 요소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바 있음

### ③ CPTPP 및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

-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국은 올해 4월 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국내 여론 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, 향후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시 멕시코를 비롯한 우호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·협력을 당부하였으며, 멕시코는 한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한다고 발언하고, 우리측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함

- 양국은 지난 1월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, PA) 정상 선언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목표를 재확인하고, 올해 PA 의장국으로서 멕시코의 적극적인 리더십하에 PA 가입 협상을 조속한 추진하기로 하였음

## [한-에콰도르 통상장관 회담]

- 3.2(수)에는 훌리오 호세 프라도(Julio Jose Prodo)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과 화상 회담을 개최하고 '16.11월 이후 중단 상태인 '한-에콰도르 SECA' 협상\*을 재개하기로 합의함

\* '16년 5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나, 상품양허 격차 및 에콰도르의 과도한 개도국 특별대우 요구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5차협상('16.11월) 이후 협상 중단

- 금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-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맞아 금년내 조속한 한-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, 기존의 경제협력 경험\*을 기반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, 기술, 인력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함

\* 에콰도르는 '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자동차(포니) 수출국

- 또한, 공급망, 디지털 통상,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해 나가는 한편, 양국이 모두 가입을 추진 중인 태평양동맹(PA) 및 CPTPP에서도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함

- 에콰도르는 석유, 광물 등 천연자원\*이 풍부한 중남미지역 진출거점일 뿐만 아니라 최근 라소(Guillermo Lasso) 신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\*\*을 추진하고 있어 양국간 협정 체결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수출 다변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\* 중남미 석유매장량 3위, 기타 금·은·구리·아연·니켈 등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 높음

\*\* 최근 멕시코, 미국, 중국 등과 신규 FTA 체결을 추진 중이며,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 및 CPTPP 가입을 추진 중

## [멕시코 현지 아웃리치]

-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방문 계기 **멕시코 상원과 하원 주요 의원**을 연이어 면담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**경제협력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, 공급망, 기후변화, 디지털 전환 등 21세기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양자 FTA를 추진할 것**이라고 설명함
- 후안 모야(Juan Moya) 상원 경제위원장\* 및 라파엘 에스피노(Rafael Espino) 상원 의원, 이그나시오 미에르(Ignacio Mier) 하원 국가재건 운동(여당) 원내 대표는 한-멕 FTA 체결에 대해 **상·하원 차원\*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역할**을 할 것이라면서, **한-멕 FTA의 추진 및 향후 비준 과정에서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**을 약속함
- \* 멕시코 경제부는 상원 경제위원회에 FTA 협상 과정을 주기적으로 보고, FTA 협상 타결이후에는 경제위·농축산위·외교위 등에서도 비준 동의 절차 진행
- **멕시코 대외무역협회**에서 주최한 **재개 대표들과의 라운드테이블**에서 여 본부장은 한-멕 FTA가 양국간 **교역·투자 확대는 물론 공급망, 디지털 전환,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(milestone)**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, 향후 협상과정에서 **양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희망함**
- 기에르모 소샤야(Guillermo Zozaya) **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장**과의 면담에서는 **기존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해 나가는데 양국 자동차 업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-멕 FTA가 양국 산업이 win-win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**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원미경 사무관(☎044-203-5742),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모덕춘 사무관(☎044-203-575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